

이민 예배 자료: 사순절과 고난주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민 문제 사무소는 재의 수요일, 세족 목요일, 성금요일에 사용할 추가 기도문과 함께 주일 성서공과에 대한 간단한 학습안내서를 제공합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성경, 역사 및 해석의 맥락에서 가능하고 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 성서공과에 대한 간단한 주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할 몇 가지 질문과 생각들을 제시합니다.

자료 작성자: 어스틴 장로교 신학대학원의 재학생이자 정치 인턴인 매덜린 하트-앤더슨 Madeline Hart-Andersen

사순절 찬송가

Glory to God 찬송가에서:

- 찬송가 749-774, “정의와 화해”
- 찬송가 775-800, “치유를 위한 애통과 열망”
- Hymn 70—“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 Hymn 154—“Jesus entered Egypt”
- Hymns 317/318—“In Christ There Is No East or West”
- Hymn 339—“Lift Every Voice and Sing”
- Hymn 343—“Where Cross the Crowded Ways of Life”
- Hymn 344—“Where Armies Scourge the Countryside”
- Hymn 345—“In an Age of Twisted Values”
- Hymn 351—“All Who Love and Serve Your City”
- Hymn 435—“There’s a Wideness in God’s Mercy”

위의 찬송가 중 많은 부분은 또한 *장로교 찬송가*(1990)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곡들도 훌륭한 자료입니다.

캐롤린 윈프리 질레트 Carolyn Winfrey Gillette 는 이민과 난민에 관한 찬송가와 더 일반적인 사순절 찬송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웹 사이트는 <http://www.carolynshymns.com/index.html> 입니다. 일부 제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braham Journeyed to a New Country”
- “A Little Bit of Salt”
- “God, How Can We Comprehend?”
- “If I Saw My Toddler”
- “Lord, When Were You a Stranger?”
- “O God You Give Welcome”
- “The Children Come”
- “There Is Room in God’s Great Welcome”

찬송가 사용허가: 캐롤린 윈프리 질레트 Carolyn Winfrey Gillette 의 [사랑의 선물: 오늘의 예배를 위한 새로운 찬송가](#) (Geneva Press, 2000)는 그들의 지역 교회의 예배에서 이 찬송가를 사용하기 위해 이 책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허가(이 책의 44 개의 다른 새로운 찬송가와 함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선물* Gifts of Love 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캐롤린 Carolyn (bcgillette@comcast.net)에게 찬송가 사용 및 예배 후보 사용을 위해 포맷 된 찬송가 사본을 얻을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합니다.]

재의 수요일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미리암,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광야에 머무르십니다.

이제 안전한 곳을 찾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곳 저곳 전세계의 사막을 방문하여 머무릅니다.

주님은 라마에서 자녀가 학살 당했을 때 라헬과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전 세계의 부모 및 보호자들과 함께 울어 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새 땅에 들어가는 롯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이민자들과 난민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물질적인 부와 상관없이 희망과 꿈의 국경을 넘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아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DREAMER 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각 DREAMer 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거의 돌보지 않고, 법적 지위를 교묘히 악의적으로 규정화 하는 한 나라에서의 법적지위를 지옥의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옳고 그른 것을 배웠으나, 그들을 따름을 소홀히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의의 끈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또는 멍에의 끈을 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멍에를 자유롭게 하거나 깨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의 빵을 독점하였습니다.

우리는 노숙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금식이 합당하도록 도와소서.

우리 사이에서 멍에를 제거하고 악을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받을 때,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고 더 이상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소서.

우리는 피난처와 안전함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피난처와 안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도록 하옵소서.

보혜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은혜와 자비로, 분노를 더디 하시며,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넘치심을 압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어둠 속으로 여행 할 때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

성서공과 본문: 창세기 9:8-17, 시편 25:1-10, 베드로전서 3:18-22, 막 1:9-15

고백의 기도:

초청: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된 한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공동체의 일환으로 우리는 죄가 개인적인 범죄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모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의 기도: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노숙자들을 지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과 피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이끌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보이고, 다른 목소리를 지닌 사람, 다른 장소에 집이 있던 사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심을 잊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여야 함을 잊어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책감은 압도적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죄를 깨끗케 하시고, 죄책감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교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선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 오셨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빛을 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성서공과 본문: 창세기 17:1-7, 15-16; 시 22:23-31; 로마서 4:13-25; 마가복음 8:31-38 또는 마가복음 9:2-9

회중 기도: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류가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시작으로 역사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물 전체가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면서 신실히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도자, 우리의 회중과 교회, 그리고 지방, 주 및 전국의 정치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의와 사랑을 나누라는 부르심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배우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의 다양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주님의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원을 독점하고, 고갈함을 만들며, 만족하지 못한 마음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는 물과 땅을 서로가 그리고 주님의 피조물과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 주소서. 우리는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자원을 추출하였기에, 홍수와 가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서식지에 살고있는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를 복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민의 하나님, 전세계의 억압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이주하여 우리 도시에서 재판없이 파멸되고 감옥에 갇힌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특히 폭력과 기회 부족을 탈출하기 위하여 온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안전하기를 희망하며 차별과 두려움을 직면함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우리 형제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우리 지역 사회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실 줄 압니다. *(여기서 특정 회중기도에 관한 기도제목을 삽입한다.)* 우리는 과거에 먼저 간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며 위대한 증인의 구름에 합류합니다. 우리는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간청하여 어둠의 시대에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목적에 따라, 평화와 정의와 자비로 일하며 성취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주기도문이 삽입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사순절 세째 주일

성서공과 본문: 출애굽기 20:1-17; 시편 19 장; 고린도전서 1:18-25; 요한복음 2:13-22

믿음의 확증/구약 성서의 기도문

(한 목소리로, 번갈아 읽거나, 혹은 교독으로 읽는다)

주님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이끌어 낸 우리의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불 기둥을 따라 자유를 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의 멍에를 남기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물질 세계, 파괴적인 이데올로기, 거짓 교리 등 많은 다른 것들을 숭배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구 창조자, 고통받는 자, 생명을 주시는 자를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은 6 일 만에 천지 및 바다와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일곱 째 되는 날에, 주님은 쉬셨으며, 그 날을 거룩한 휴식의 날로 구별하여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창조물을 남용하고, 휴식을 취하는 날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고용주는 취약한 근로자들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양육하고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쉬는 날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는 제한된 방식이지만 개별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간통을 저지르거나,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로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훔치고 사람들의 권리를 뺏는 시스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위험한 장소로 보내고, 그들이 살해 당할 때 자신을 스스로 면제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육체적인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인신 매매, 특히 성매매의 문제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 권리, 안전 및 토지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사실과 허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셜 미디어와 엄청난 소비 시대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빛어 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변의 세상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원 및 주님의 사랑하는 아이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죄를 포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성서공과 본문: 민수기 21:4-9; 시편 107:1-3, 17-22; 에베소서 2:1-10; 요 3:14-21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빛은 세상에 왔지만 우리는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서는 어둠에서 돌아선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의기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주님은 외국 땅에서 난민으로 살았고, 주님은 압제적이고 점령적인 체제 아래의 이 땅을 집이라고 부르시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의 현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인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도록 도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의 마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성서공과 본문: 예레미야 31:31-34; 시편 51:1-12 혹은 시편 119:9-16; 히브리서 5:5-10; 요한복음 12:20-33

고백의 기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개인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동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 모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율법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난민들이 우리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와 불평등을 영속 시키는 부당한 시스템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찬탄과 분노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예의를 요구했습니다. 출입국 관리가 어린이를 따라서 병원에 찾아가거나 자녀의 학교 앞에서 부모들을 체포했을 때 우리는 연민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 모두를 절망 속에서 새로운 땅의 평화를 발견한 롯과 요셉의 용기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스런 친절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자유롭게 주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려 주일

성서 공과 본문—종려: 마가복음 11:1-11 혹은 요한복음 12:12-26; 시편 118:1-2, 19-29

성서 공과 본문—고난: 이사야 50:4-9a; 시편 31:9-16; 빌립보서 2:5-11; 마가복음 14:1-15:47 혹은 마가복음 15:1-39 (40-47)

예배의 부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문은 의인을 위해 열립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주요한 머리 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 되심"과 "호산나"를 외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에 들어오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기도: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 가운데로 오심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려 가지를 흔드는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호산나의 소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빠르게 변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대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환영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세족 목요일

성서 공과 본문—출 12:1-4 (5-10), 11-14; 시 116:1-2, 12-19; 고전 11:23-26; 요 13:1-17, 31b-35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멕시코 신학 공동체 댄 곤잘레스 오르테카 Dan González Ortega 목사가 쓴 기도

나사렛 예수님:

영혼의 형제,

여정의 동반자.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자비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겸손한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처럼 용감하고,

주님과 같은 예언자,

주님과 같은 연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자비로운 어머니

우리가 끊임없이 당신의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통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존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한 성령,

영원한 지혜,

부드러운 산들 바람

우리의 진지한 회개에 함께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

발을 씻기시고,

친구에게 배신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봉사하고,
주님 같은 사랑,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신성한 우주,
어둠 속에서 빛의 빛,
진리와 영원한 사랑.
주님, 우리의 간구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목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들으며,
주님처럼 느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창조적 루하 ^{Ruah1}
가르치시는 프누마 ^{Pneuma2}
성취 된 약속
허리케인 폭풍은 교회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영향으로,
주님을 위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만찬 식탁에서,
그리고 기도의 힘 ...
세족 목요일에 온교회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¹ 창세기 1 장 1 절에 서술 된 창조에 사용 된 히브리어 (영):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하시니라."

² 사도행전 2 장 4 절에 기록 된 오순절에 사용 된 헬라어 용어 (성령):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 금요일

성서 공과 본문—사 52:13–53:12; 시 22; 히 10:16–25 혹은 히 4:14–16; 5:7–9; 요 18:1–19:42

예배의 부름:

주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양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뢰했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주님께 그들은 울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그들은 믿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의 이름으로 경배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버리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장로교회 예배부 담당 데이빗 갬브렐 David Gambrell 의 기도

부활 주일

성서 공과 본문: 사도행전 10:34-43 혹은 이사야 25:6-9; 시편 118:1-2, 14-24; 고린도전서 15:1-11
혹은 사도행전 10:34-43; 요한복음 20:1-18 혹은 마가복음 16:1-8